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'26.11.3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선별·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○ 연료전지 늘리는 삼천리…도시가스 성장 기반 넓힌다 ('26.11.2, 한스경제)

- 삼천리의 올해 상반기 연료전지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2억1,600만㎥로 전년 동기보다 28.6% 늘었고, 증가분 4,800만㎥가 전체 판매 증가분 4,700만㎥를 웃돌아 다른 용도의 감소를 보완함

- 경기그린에너지 가동 증가와 신규 공급이 수요를 늘렸으며, 삼천리는 자회사 삼천리ES를 통해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에도 참여하지만 상반기 영업이익 개선을 연료전지 공급만의 성과로 단정할 수는 없음

○ 코스닥 일반상장에 도전하는 탄소소재 플랫폼 기업 [IPO 특집 ② 제이앤티지] ('26.11.2, 월간수소경제)

- 제이앤티지는 인산형 연료전지용 탄소기재와 수소차·수전해용 기체확산층을 생산하며, 두산퓨얼셀에 탄소기재를 공급하고 북미 수요 증가에 맞춰 증설을 검토 중임

- 지난해 현대차 수소차용 소재 공급업체로 선정됐고 독일 보쉬 수전해 분야에서도 유럽 양산 승인과 공급계약을 확보했다고 회사가 설명했으며, 공모자금은 생산능력 확대에 활용할 예정임

○ 금요일 저녁에 수소입찰 공고…업계 “수소발전 홀대 상징”
(’26.10.30, 에너지경제신문)

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30일 오후 7시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공고했으며, 일반수소 930GWh와 청정수소 500GWh를 발주해 지난해 물량 1,300GWh와 3,000GWh보다 각각 줄임
- 청정수소발전은 석탄·암모니아 혼소를 제외하고 비가격 평가 비중을 40%에서 50%로 높여 2027년 6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
- 일반수소발전은 이산화탄소 포집·활용·저장계획 평가를 신설하고 2026년 12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, 업계는 늦은 공고와 축소 물량에 부담을 표함

○ 수소 기술에서 투자·구매로…WHE 2026, 상용화 연결고리 찾는다
(’26.11.2, 에너지데일리)

- WHE 2026은 수소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투자와 장기 구매로 연결하기 위해 기술·정책·금융·수요를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됨
- 11월 4~6일 킨텍스에서 12개국 197개사가 참여하며, 국제 컨퍼런스와 전시·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사업화와 공급망 협력 방안을 모색함
- 현대차그룹 등 주요 기업의 수소 생산·활용 기술과 사업모델이 소개되며, 공동 실증·구매 협의·투자 검토로 이어지는 후속 성과가 핵심 지표가 될 전망임

□ 해외

○ [EU] ITM Power CEO, RED IV의 수소 의무 완화가 유럽 수전해 산업 존립 위협 경고 ('26.10.30, Hydrogen Insigh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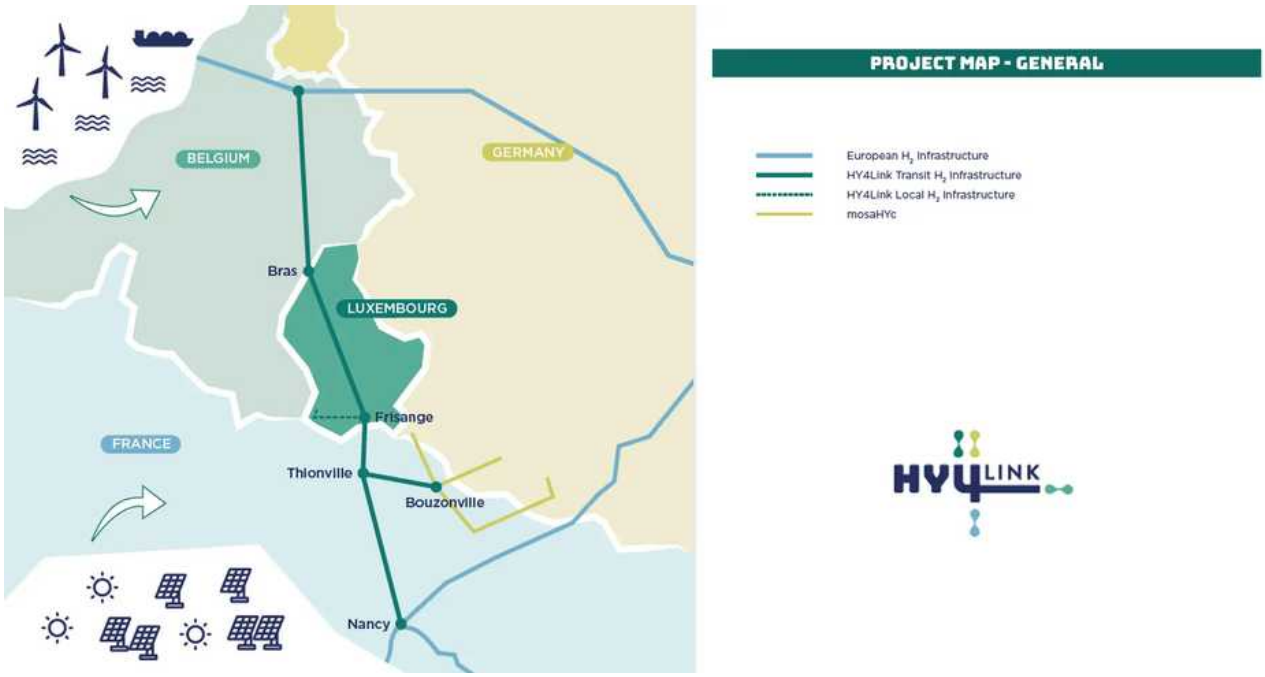
- 영국 수전해 설비 제조사 ITM Power의 Dennis Schulz CEO는 EU의 그린수소 사용 의무 완화가 유럽 수전해 산업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함
- 유출된 RED IV 검토 문건에는 회원국별 RFNBO 의무 목표를 폐지하고, 직접 보조금과 거래 가능한 크레딧 기반의 EU 차원 목표로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됨
- Schulz CEO는 수전해 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 대비 유럽이 우위를 보유한 핵심 산업 분야라고 강조함
- 의무 목표 완화는 선도 투자기업에 불이익을 주고, EU 정책 신뢰와 프로젝트 투자 및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
- 앞서 셸·Moeve·Galp·도요타·볼보 등 수소 관련 기업 268곳도 공동서한을 통해 RFNBO 의무 목표 유지를 촉구함
- Siemens Energy와 Uniper 역시 규제 불확실성으로 수전해 설비 투자와 유럽 내 수소 프로젝트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함
- 반면 BASF·Dow·Yara·OCI·Fertiberia 등 비료·화학기업은 RED III의 산업부문 그린수소 사용 목표(2030년 42%)가 달성하기 어렵다며 의무 목표 재검토를 촉구함

○ [인도] 인도, 그린수소 환산 연 55만5천 톤 구매계약 23건 체결 ('26.10.30, Hydrogen Insight)

- 인도 정부는 자국 개발사들이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와 이를 원료로 한 제품의 장기 구매계약 23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, 계약 물량은 수소 환산 기준 연간 55만5,610톤임
- 이 가운데 연간 40만7,355톤, 약 73%가 수출용이며, 23건 중 18건은 2026년에 체결돼 이들 계약만 수소 환산 연간 40만톤을 넘는다고 정부가 집계함
- 정부는 모든 계약의 이행에 9,000억 루피, 약 95억 달러(약 13조 1,000억 원)를 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으나 계약 체결은 생산시설 완공이나 실제 인도와 다른 단계임
- 주요 사례로 ACME 그룹의 일본 IHI 대상 그린암모니아 연 48만8,000톤, 라슨앤투브로의 일본 이토추 대상 연 30만톤 공급,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의 삼성물산 대상 15년 그린암모니아 공급계약 등이 제시됨
- 개별 암모니아·메탄올 계약 물량은 제품 중량이고 전체 55만5,610톤은 수소 환산량이므로 서로 직접 합산할 수 없으며, 장관의 세계 선도국 발언은 정부의 평가임

○ **[룩셈부르크] 룩셈부르크, 프랑스 연결 Hy4Link 수소관로 1단계 승인 ('26.10.30, Fuel Cells Works)**

- 룩셈부르크 정부는 10월 28일 프랑스 티옹빌과 자국 남부 페탕주를 잇는 약 40km Hy4Link 수소관로 1단계 사업을 채택했으나, 노선 검토·환경평가·인허가가 남아 있어 즉시 착공하는 것은 아님
- 1단계는 룩셈부르크 Creos Luxembourg Hydrogen과 프랑스 NaTran이 개발하며 프랑스·독일의 국경 간 수소망 mosaHYc와도 연결할 계획임
- 약 80km의 2단계는 벨기에 접경 브라스에서 프랑스 접경 프리상주까지 이어져 벨기에 수소망과 연결하며, Creos Hydrogen과 벨기에 Fluxys Hydrogen이 협력함
- Hy4Link는 2025년 12월 EU 공동이익사업으로 지정됐고 북해 공급 거점과 산업 수요처를 잇는 재생수소·저탄소수소 수송망을 목표로 함
- Creos는 전체 1·2단계 가동 목표를 각각 2032년·2034년으로 제시하지만, 이번 정부 승인 공지에는 티옹빌-페탕주 구간만의 확정 사업비나 세부 착공 일정이 없음



<사진: Hy4Link의 프랑스·룩셈부르크·벨기에 수소관로 연결 구상 / 출처: Hy4Link>